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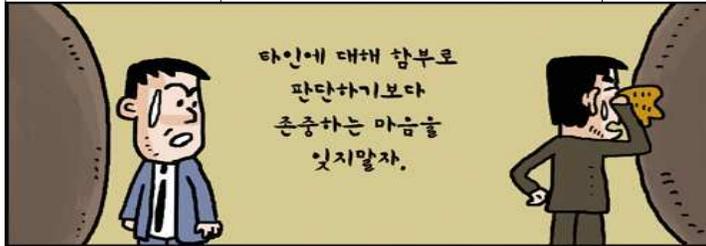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제 1독서] 창세 18,1-10
 [화답송] 시편 15(14),2-3,7,3,4-4,5(◎ 1-7)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 2독서] 콜로 1,24-28
 [복음 환호송] 루카 8,15 참조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복음] 루카 10,38-42

성가	8시 미사	입당 64	봉헌 -	성체 156 172	파견 21
	11시 미사	입당 64	봉헌 주님 만나이다	성체 156 172	파견 21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16주일(7월 21일)		연중 제 17주일(7월 28일)		연중 제 18주일(8월 4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오로(명국)	허세실리아(홍숙)	임루카(승원)	황테레사(혜정)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김길베르토(광호)	최분도(환준)	최다니엘(대연)	김안드레아(찬곤)	허라우렌시오(순구)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전베로니카(진영)	허세실리아(홍숙)	김테레사(승희)	김글라라(순희)	허파비올라(옥진)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한 가지뿐 일까요? 세상사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뿐인가요? 아니죠. 인생에는 정답이 없으며, 세상을 살다보면 필요한 것이 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루카10,42)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요?

오늘 1독서와 복음은 둘 다 손님에 대한 **환대**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집에 온 손님을 환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만의 만남은 참 반갑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은근히 신경 쓰일 일들이 참 많습니다. 1독서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천막 어귀에 다가오는 세 사람을 환대하는 정성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서 환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둘 다 손님을 환대한 이야기를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정성을 다해서 환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님을 환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자식을 얻고 복을 받게 되었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은 조금 다른 차원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환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입니다**. 마르타는 손님 시종드는 일로 분주하였는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르타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종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라고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에게 “마

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한 쪽을 편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물론 손님을 시종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손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손님에게는 맛있는 음식도 필요하지만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과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각자에게 맡겨진 몫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몫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마르타와 마리아의 화해

재미삼아 사람의 성격과 혈액형을 연결지어볼까요. 예를 들면, 언니가 바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마리아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사는 AB형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씩씩하게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준비하며, 주님에게 거침없이 자기 의견을 말씀드리던 마르타는 소심한 A형은 아니었겠지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루카 10,41-42)

마르타도,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르타는 맛있는 음식에 자신의 사랑을 담으려 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마르타의 경우에는 수단(음식)과 목적(사랑)이 슬그머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음식 만드는 일이 최종 목적이 되는 순간, 동생이 알아워지고 주님도 원망스럽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성과와 실적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려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를 책임지는 사람들도 직장에서의 근무 못지않게 일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어 기도할 시간은커녕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에 쫓겨 사는 사회는 말 그대로 ‘피로사회’입니다. 건강한 삶은 외적인 활동과 내면으로의 집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삶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돌아봄 없이, 외적인 성과나 성공만을 추구하다보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초고속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40대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이유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

오늘은 농민주일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환경 속에서 묵묵히 소중한 땅을 흘리며 우리의 먹거리를 장만하시는 분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느님 아버지” (요한 15,1 참조)의 사랑을 믿고 “땅의 귀한 소출을 참고 기다리는” (야고 5,7 참조) 농민의 마음가짐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와도 통합니다.

농민들은 농사가 인간의 외적인 활동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느님의 축복과 섭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타의 사랑방법과 마리아의 사랑방법이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나눌 것이 없는 것만 같았는데
그러고 보니 나눌 것이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글_이태석 신부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옛가락의 기도

병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마태 7,7:공동번역 성서)

이것은 무기력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길은 기도뿐이었으며, 제가 찾고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기도를 통한 주님뿐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열중하여도 좀처럼 제 가슴에는 평화가 깃들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한가운데 서시며 내려주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제 마음에 여전히 찾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기도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기도는 ‘주님, 제 병을 고쳐주소시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소시오’, ‘주님, 제 병을 고쳐주소시면 주님을 위한 글을 쓰겠습니다.’ 라는 식의 주님과 벌리는 흥정이었으며, 조건부 협상이자 벼랑 끝 전술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감히 주님께 던지는 막무가내식 생떼이자 명령이자 협박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순종하셨고, 주님께서도 피땀을 흘리시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순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불경에는 ‘무엇이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고통이요, 구하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즐거움이다.’ 라는 명구가 있습니다. 당나라의 선승 마조(馬祖)는 말하였습니다.

“진정으로 법을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夫求法者 無所求) 성 프란체스코 살레시오도 말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청하지 말고, 아무것도 거절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제가 것처럼 열심히 기도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였던 것은 잘못 구하고, 잘못 찾고, 잘못 문을 두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음을 구하는 기도’ 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모든 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 아무것도 맛보려 하지 마라. / 모든 것을 얻기에 이르려면 /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마라. / 모든 것이 되기에 이르려면 / 모든 것이 되려고 하지 마라. / 모든 것을 알기에 이르려면 /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바로 그 무렵 정진석 추기경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추기경께서는 단 한마디만 제게 전하였습니다. “베드로 형제님, 하느님을 믿으세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하느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못 박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마태 6,8:공동번역 성서)

제가 그토록 기도했으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였던 것은 제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이를 구해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의 기도는 옛가락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옛가락입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가위로 자르시든 옛치기를 하시든 옛장수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완전히 저를 맡기겠습니다. 다만 제가 쓰는 글이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 달콤한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옛장수의 이름으로 바라나이네. 아멘.”

요즘 저는 80%정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인호 베드로 | 작가

머무름

안락사는 이른바 ‘과도한 치료’ 를 그만두는 결정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이거나 불균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살이나 안락사와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65항

“양심이란 무엇이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양심에 교육이 필요 하나요?”

사람은 하루를 살기 위해 보통 세끼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천 가지 말과 행동을 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행위는 타인은 물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 결과는 이웃과 자신에게 선한 것이 되어 기쁨과 평화를 주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어 많은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먹지 말아야 할 상한 음식은 감각기관으로 분별하는데, 인간은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선하거나 악한 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알아보는 이성적 판단, 즉 양심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양심 깊은 곳에는 자신이 복종해야 할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 주신 법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776항 참조) 그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악을 피하도록 해줍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이며, 가장 비밀스럽고 성스러운 곳입니다. 바로 그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홀로 만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듯이 매 순간 인간의 양심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그리스도의 모든 대리자들 중에서 첫 번째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혀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선물입니다. 사람은 어릴 적부터 훌륭한 말을 익히기 위해 좋은 글을 읽고, 정확한 표현을 위해 문법도 배웁니다.

양심도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양심 교육이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인간은 부정적인 영향에 물들기 쉽고,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여 권위 있는 가르침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교육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양심의 역할인 도덕적 판단은 계발되어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783항 참조)

잘 형성된 양심은 올바른 판단을 내립니다. 양심은 바로고 진실할 때 빛나고, 허는 진실을 토해 낼 때 가장 위대합니다. 양심은 생명의 길을 찾아 비추는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리의 기름이 필요하며, 진리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양심 교육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며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기도의 성전인 시편은 수천 년 동안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걸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시편 1,1-2)이라고 맨 처음처럼 노래합니다.

과학과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편리함을 미끼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처럼 한 가지뿐입니다.

삶의 매 순간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양심은 자기 혼자만이 찾아볼 수 있는 감실입니다. 양심은 하느님의 계명을 되새기고 가르침을 받으러 우리가 매일 올라가야 할 마음속의 시나이 산입니다!

“아침이 되면 시나이 산으로 올라와, 이 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탈출 34,2)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1776-1802항
사목국 연구실

제대 위의 초

1. 의미

- 그리스도의 현존을 강조
- 흥송과 축제의 기쁨을 드러냄
- * 반드시 제대 위에 놓을 필요는 없음.

2. 촛불의 의미

-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방을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상징
- 희생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의미

3. 초의 배열

- 2개의 초를 놓는 경우 : 연중시기 평일, <기념> 등급의 성인 축일
- 4개의 초를 놓는 경우 : 연중시기 주일, 사도나 복음사가의 축일과 같은 <축일> 등급의 날
- 6개의 초를 놓는 경우 : 중대한 대축일
- * 보통 제대 위의 초는 짝수로 놓음.
- 초를 하나 더 켜 놓는 경우 : 주교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실 때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날짜	지향	봉헌자
7월21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윤사비나
	연 윤바오로(광의)	정데레사(혜경)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채다니엘(인국)	가족
	연 친정부모님	박데레사
	연 정다니엘(성암)	원프란치스코(광희)
	생 정로사(화봉)	익명
	생 박헬레나(호영)	박데레사
	생 정미카엘(라성)	성도미니카
	생 이막달레나(선희)	은총의 어머니 Pr.
7월 23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이마리아(명자)	이요셉(건용)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
7월 24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생 손자손녀들	김카타리나
	생 전마리아	임안젤라
7월 25일 목	연 김사비나	채데레사
7월 26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김안나/최안나	박헬레나
	생 차안나 영명축일	박헬레나
	생 채줄리아	채헬렌
	생 최안나	서데레사
7월 27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015.28(185 세대 약정)
 * 봉헌액 \$291,545.28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9	204	34	327
헌 금	\$615	\$1,271	\$124	\$2,010

< 교무금 > \$4,310

서춘애(7) 김원조(7-12) 박일환(6-7) 조상희(7)
 김영순(7) 박호영(7) 최옥경(4-6) 홍흥기(5-7)
 허순구(7-8) 김현수(6-7) 소명환(7-8) 임승원(7)
 이완수(7-8) 이흥구(7-8) 정진희(7) 이규현(7)
 이인학(4-6) 박영실(7-8) 박덕희(5-8)

< 성소후원금 > \$180

서춘애(7) 박호영(7) 홍흥기(5-7) 천종욱(4-7)
 소명환(7-8) 정진희(7)

< Bishop's Appeal > \$175

서춘애(12) 홍흥기(5-7) 천종욱(4-7)

< 감사헌금 > 익명 \$200 이육상 \$300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1,750
 * 총 납입 \$49,400

* 지난 주 약정해 주신 분

김현수, 백승진, 이기하, 이경섭, 김유한

* 지난 주 봉헌해 주신 분

김현수, 한재구, 박찬길, 임승원, 최몽열, 백승진
 이기하, 이인학, 이경섭, 허순구, 김유한, 원광희
 권창모, 별사당밴드

~~~~ 오늘 간식은 천다니엘/아네스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항 -

- ◆ 얇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 도미니코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이 8월 8일입니다.  
영적선물 봉헌서를 친교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주십시오.
- ◆ 오늘 교중미사는 본당을 방문 중이신 박유진 바오로 신부님(가톨릭 문화원장), 박상수 바오로 신부님(압구정 1동 본당), 김이균 빠뜨리시오 신부님(가톨릭 대학교수)께서 함께 집전해 주십니다.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2차 현금 안내  
7월 21일(오늘) : Catholic University/Latin America
- ◆ 본당 주일학교 교감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레이스 강이 FIAT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 ◆ 모임
  - \* 프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 평협회의 : 7월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사목회의 : 7월 28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신앙의 해 특강 안내  
일시 : 7월 21일(오늘) 오후 1시 - 4시 30분  
주제 : 신앙과 성가  
강의 : 이 종철 베나시오 신부님  
(한국 천주교 성음악 토착화 연구원 원장),  
성가 "주여 당신 종이" 외 다수 작곡  
참가비 : \$10(점심 제공)
- ◆ 빈첸시오 128차 홀리스 저녁봉사  
일시 : 매주 넷째주 목요일(7월 25일) 오후 4시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례회  
일시 : 7월 27일(토) 오후 12:30  
장소 : 교육관 106호실
- ◆ Sunday School Summer Camp(접수 : 친교실)  
일시 : 7월 27일(토) - 29(월) 중등부  
7월 29일(월) - 8월 1일(목) 고등부  
장소 : Capital Mountain  
2150 E Weimar Xrd Weimar, CA 95736  
참가비 : 중등부 \$155 고등부 \$195  
Sibling Discount : \$20/person

| 7월 구역모임 |             | 필리피서 1-2장                   |
|---------|-------------|-----------------------------|
| 4 구역    | 7월27일(토)6시반 | 이종규 미카엘 덕                   |
| 5 구역    | 7월28일(일) 1시 | 송인환 토마스 덕                   |
| 7-1구역   | 7월27일(토) 2시 | 파운더스룸                       |
| 7-2구역   | 7월28일(일)1시반 | Lake Chabot Park            |
| 8 구역    | 7월28일(일) 5시 | 김세록 제랄드 덕                   |
| 10 구역   | 7월28일(일) 4시 | Rossmoor Hillside Clubhouse |

- ◆ 장학금 신청 접수(친교실)  
신청일시 : 6월 23일 - 8월 11일까지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ageneheo@hotmail.com](mailto:ageneheo@hotmail.com)
- ◆ 19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10일(토) 장소 : 샌프란시스코 성당  
강사 : 김명선 사도요한 신부님(부산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지도신부)  
참가비 : \$25(점심, 저녁 제공)  
문의 : 성령기도회 or 기도회장 510-684-7207  
\* 성령대회 파견미사 때 미사봉헌을 위한 가정봉헌 및 사업체 봉헌도 함께 접수합니다.  
\* 단체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버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선착순, 버스비 \$10)
- ◆ 가톨릭 성서 모임
  - \* 20대 이상 미혼 청년 대상 한국어반, 영어반  
창세기부터 9월에 시작  
문의 : 백승진 미카엘 510-730-1524
  - \* 기혼남녀반
    - 월화 오전반 & 저녁반(창세기)  
봉사자 : 조마오로 수녀님
    - 목금 저녁반(탈출기) : 창세기를 마친 분들에 한함  
봉사자 : 본당신부님  
문의 및 신청 : 사무실

**주일학교 영어미사 : 11시 친교실**  
**주일학교 등록 : 8월부터**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3-2014)**

- 개강 : 2013년 9월 7일
- SAT II 한국어 시험반( 8/3, 8/10, 8/17 )
- 특별활동수업 : 소고춤(무용전공 선생님 지도)
- 수업료 : \$300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